

프로이트 읽기 :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5강

유아기의 생식기 - 성욕 이론에 덧붙이는 글 (1923)

이 글은 미성숙한 성 충동 발달 단계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남근기 단계에 관한 언급이 최초로 제시된 글이다.

『세 편의 에세이』는 초판 이후 글을 완전히 개작하지는 않았으며, 원래 글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문에 보충적 설명을 삽입하거나 수정을 가함으로써, 그 동안 정신분석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사항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옛날과 최근의 생각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전체 속에 통합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글에서 어린아이와 성인들의 성 생활의 근본적 차이점에 역점을 두었고, 리비도의 前성기기적 구조를 표면에 부각시켰으며, 아울러 성 발달의 이중적 국면의 전개라는 사실도 제시했다. 결국 우리는 어린 시절(대략 5세 경) 성욕의 최종결과가 어른의 성욕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세 편의 에세이』 최종판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다. 거기서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제시했던 대상 선택이 이미 어린 시절에 자주,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사춘기 이후 성생활이 취하는 최종적 행태와 가장 근접한 어린 시절의 성생활이다. 차이가 있다면 어린 시절에는 성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충동들의 조화와 생식기 아래 종속시키는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식기를 생식에 기여하는 최우선의 반열에 올려놓는 일은 성 조직화의 최종 단계에서나 가능하다.

지금은 이러한 언급에 만족할 수 없다. 또한 어린아이의 성생활과 어른의 성생활이 거의 같다는 것도 대상 선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아 성욕 발달 절정기에는 생식기와 생식기 활동에 대한 관심도 성인 못지않다. 유아기 성기기 구조의 특징은 성인의 최종적 생식기 구조와는 다르다. 유아기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오직 하나의 생식기, 즉 **남성의 생식기만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아기 성생활에서는 생식기가 아니라 **남근**이 중요하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설명은 남아의 경우에만 타당하다는 것이다. 여아의 경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아에게 남근이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앞서 남아와 여아 모두 남근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설명은 무엇인가?) 남아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 차이를 생식기의 차이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남아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사물에서도 자신의 생식기와 유사한 것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또 남아는 다른 사람의 페니스도 보려고 한다. 자기 것과 비교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나중에 남성 신체의 이 부분을 발달시키는 추동력은 알고자 하는 욕구, 성적 호기심으로 나타난다. 아이들이 보이는 과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은 성적 탐구를 위해 실행한 실험으로 드러났다. 이 탐구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모두가 자신과 똑같이 페니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페니스가 없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보았다고 믿는다. 지금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곧 커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관찰과 선입견 사이의 괴리를 덮는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있었으나 나중에 **박탈**당한 것이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린다. 즉 페니스가 없는 것을 **거세**의 결과로 이해하고, 따라서 이제는 자신에게도 거세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한다. 우리는 거세 콤플렉스(거세 불안+페니스 선망)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러한 상실을 남성 생식기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 여성을 두려워하는 것,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것 등이 여성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 페렌치는 최근 이 두려움의 상징인 메두사의 머리를 페니스가 없는 여성의 성기에 대한 인상과 결부시켰다. 어린아이들은 거세를 형벌의 결과로 생각한다. 어린아이들은 여성이 생식기가 없는 것은 그 여성이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요컨대 여성들은 충동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자기 어머니처럼 자신이 존경하는 여성들은 오랜 기간 페니스를 보유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여성이란 페니스가 없는 존재가 아니다. (즉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 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는 그 아이가 아기의 기원과 탄생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때, 그리고 여자만이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될 때다. 그러나 아직 여성의 생식기를 알아낸 것은 아니다.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 살다가 내장의 출구를 통해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양분화의 현상은 대상 선택 속에서 일어난다. 즉 주체와 객체의 대립이다. 전성기기의 가학적 항문구조 단계에서는 아직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 성향과 소극적 성향의 대립이 나타난다. 그 다음 남근기에서는 남성만 존재하고,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의 대립은 남성 생식기와 거세된 생식기로 양분된다. 성의 양분화가 남성과 여성으로 정착되는 때는 성 발달이 거의 완성되는 사춘기다. 남성은 주체, 능동성, 그리고 페니스의 소유를 포함하며, 여성은 대상적 요소와 수동성을 부여받는다. 여성의 질은 페니스의 안식처로서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어린아이의 성 이론에 관하여 (1908)

최초로 거세 콤플렉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글

이 글의 자료는 여러 출처에서 뽑아낸 것들이다. 1)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직접 관찰한 자료, 2) 성인 신경증 환자들이 정신분석 치료 중 그들이 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을 기억하여 얘기한 자료, 3) 신경증 환자의 정신분석을 통해 나온 자료를 추론과 재구성을 거쳐, 즉 무의식적 자료를 의식적 자료로 전환한 것을 바탕으로 한 자료.

이 중 첫 번째 것은 주제와 관련해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성 활동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 때문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성적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애써 관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가장 공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것도 회상 속에 왜곡되었다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마지막 자료도 역시 사람들이 정신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아이들도 사춘기 이전에 성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신경증 환자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며,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성향을 지녔다는 주장을 존

중할 수 없다. **신경증 환자들은 다른 정상인들과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정상인들의 어린 시절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정신분석이 일구어낸 성과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정상인은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신경증 환자들은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서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그것은 실패와 다름없다)

다음의 관찰은 오직 남성의 성적 발달에만 국한시켰다. 여기서 시도하는 작업은 신화나 동화를 설명하는데도 이롭고, **유아기의 성 이론은 무엇보다 신경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혹성에서 온 것처럼 이 지상의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그런 신체적 차이점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이미 기존에 확립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나 누나를 대하는 태도) 그러나 아이들의 지식 욕구는 두 살 정도 지나 동생이 태어날 무렵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런 아이들이 실제 경험하는 것은 **부모의 관심과 보호를 빼앗긴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영원히 자기의 소유물을 동생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아이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고 능력을 촉발시킨다.** (타자가 없다면 인간은 주체가 되지 않는다) 동생을 둔 아이들은 경쟁 상대에게 적대감을 표출한다. 이런 감정과 불안감이 생겨날 때 아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아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신화와 전설 속에서 이 첫 번째 난제의 여러 변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극히 중대하고 긴박한 사고의 산물이다. 아이는 모든 지식의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모호한 답변을 듣거나 꾸지람을 듣거나 아니면 황새 전설만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들은 어떤 세 살짜리 남아가 사라졌다가 근처 커다란 연못가에서 발견되었는데, 연못에 아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여 그곳에 갔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황새 전설을 믿지 않으며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하고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가고, 분명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의혹을 갖는다. 아이들은 이 때 처음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견해는 어른들의 눈에 옳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견해는 어른의 권위에 의해 지지받는다라는 생각. 착함과 관련된 견해들이 의식적 견해들이 되고, **아이들의 탐구로 얻어낸 견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억압된 무의식적 견해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신경증의 핵심 콤플렉스가 생겨난다.

5살짜리 꼬마(Little Hans)에 대한 분석에서 이러한 견해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임신 중인 엄마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이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 배가 불러오는 것과 아이의 출현 사이의 관계를 미리 알아차렸다는 사실. 이 조속한 발견은 나중에 억압되거나 망각된다. 황새 우화는 어린아이의 성 이론이 아니다. (동화도 아이들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친근한 동물들이 드러내는 교미 행위 관찰을 통해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의 깊은 탐구 노력은 혼자서는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은 무지에 의해 제한을 받고 또 스스로 설정한 그릇된 성 이론에 의해 억압을 받는다.

아이들의 그릇된 성 이론에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기괴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는 **그 이론들이 이미 아이들의 기관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성 충**

동의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로 설명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모든 아이들은 똑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성 충동의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한다)

아이들의 그릇된 성 이론 가운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양성간의 차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아이들은 페니스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의 페니스에 대한 가치평가는 이 신체 부분이 없는 사람을 상상하지 못하는 아이의 사고 속에 반영되어 있다. (과대평가) 남아가 자기 여동생의 성기를 보았을 때, 아이의 편견은 너무도 강해서 두 눈으로 인지한 것까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이들은 예외 없이 “내 여동생 것은 아주 작아.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커질 거야.” 이런 생각은 고대의 자웅동체 이야기도 나타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로 반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고착되어, 성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페니스가 없는 사람과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 든다면, 그런 남자는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페니스에 대한 자위를 하다가 부모나 보모에게 들키는 경우 **거세 위협**을 받게 되고, 이 위협은 아이가 성기에 부과한 가치가 높을수록 더 효과가 크다. 여성의 생식기는 동성애자에게 쾌락을 주기는커녕 혐오감만 준다. **해부학에서는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남성의 페니스와 같은 기관으로 간주한다.** 크게 자라지 않는 이 작은 페니스가 어린 시절에는 진짜 페니스와 똑같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기관의 흥분은 **어린 소녀의 성 활동에 남성적 성격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페니스를 지니고 있다는 유아의 성 이론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있다. 어린 여아들이 남아 형제의 견해에 동감한다는 사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찰은 곧 시기심으로 바뀌고 남아들과 같은 자세로 소변을 보려고 한다.

아기가 엄마의 몸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아기가 몸속에 들어갔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그럴듯하다. 이 사건에 아버지의 페니스가 분명 관련이 있을 것이다. 페니스의 자극에는 아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충동이 관련되어 있다. **이 충동은 뭔가 격렬한 짓을 저지르고 싶고, 무엇인가를 압박하여 밀어 넣고 싶고, 부수어 버리고 싶고, 어딘가에 구멍을 내고 싶은 막연한 충동이다.** 그러나 엄마의 몸에 아버지의 페니스가 삽입되어 아기가 엄마의 몸속에 생기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 시점에서 아이의 탐구 노력은 혼란에 빠진다. 자기의 이론이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페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이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의 전형이다. 유아가 갖는 사디즘적 충동에서 바라 본 부모의 성 행위.

두 번째 이론. 여성의 질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두 번째 성 이론을 믿게 만든다. 만약 아기가 엄마 몸속에서 자라고 그 다음 몸 밖으로 나온다면, 이는 한 가지 가능한 경로, 즉 항문을 따라 일어난다. 곧 아기는 배설물이다. 조금 더 자란 뒤에 이것은 배꼽이나 배를 갈라서 나온다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 이론들은 거부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에 명백히 표현되고 기억된다. 이때쯤이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항문성애 요소가 자리를 잡고 이전의 이론들을 억압한다. 아이는 타고난 호분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대로라면 그 다음 뒤따르는 것은 아이들이 아기를 낳는 고통스러운 특권을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아기가 항문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라면 남성도 아기를**

못 낳을 이유가 없다. 이 탄생에 대한 유아기 이론은 광기 사례에서도 부활되었다. 자신의 배설물을 가리켜, “저게 제가 오늘 낳은 아기에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집에서 우연히 부모의 성교 장면을 보게 된 경우 갖는 이론이다. 이 장면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불완전한데, 아이들은 항상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즉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성교를 강자가 약자에게 강압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인식한다. 아이들은 이 행위를 아기 탄생의 문제에 대한 연결고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저 사랑의 행위를 폭력 행위로 해석하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간과한다. 그러나 부모 성교 행위에 대한 희미한 기억 속에서 가학 충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자료는 부모의 침대를 함께 쓰는 동안 획득한 것으로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이 성교에 대한 가학적 이론도 어느 정도는 옳다. 이는 부분적이거나 성 행위와 그에 앞서 일어나는 성-전투sex-battle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결혼 생활에서 아내는 남편의 포옹에서 빠져나오려 하는 경우가 많다. 포옹이 쾌락을 주기보다는 임신의 위험만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고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혼 생활 전반이 큰소리와 적대적 제스처로 표현되는 싸움의 연속으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아이가 침대나 속옷에서 핏자국을 발견하면 그것이 자신의 견해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신경증 환자들의 피의 공포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문제는 결혼의 문제다. 이에 대한 아이들의 답에서 공통적인 것은 결혼에서 즐거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은 암전함(검손함이란 번역은 문맥 상 어색함)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 마주보고 오줌을 누다.’ 의식적 기억 속에 거의 보존되지 못하는 결혼의 본질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의견은 신경증 증후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이들의 놀이라는 게 결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온갖 행위를 짝을 지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병원놀이, 소꿉놀이를 기억하면 될 것이다)

아기가 키스를 통해 생긴다는 이론이 있다. 이는 명백히 성감대로서 구강의 우위성을 드러내 준다. 경험상 이 이론은 전적으로 여성적 이론이며, 어린 시절 성에 대해 강한 억압을 받았던 여자아이들에게서는 병의 원인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구강 충동에 대한 분석은 주로 히스테리나 우울증 환자들, 즉 여성들의 사례로부터 도출되었다. 도라의 사례분석. 반면 항문 충동의 경우는 강박증자의 사례에서 도출된 것이다. 쥐인간 사례분석) 대략 10세에서 11세 때 아이들은 성 문제에 관한 지식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데,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의 질이라는 존재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지만, 여전히 정액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아이들은 오줌 이외의 물질이 성기에서 배설된다는 사실을 추측하지 못하며, 첫날 밤 무지한 처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오줌을 싸려고 한다며 분개하기도 한다.

